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6년도 표어 ◎

"성숙한 교회를 이루자"(엡4:13)

◎ 생활지침 ◎

섬기는 생활
주는 생활
경건한 생활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농촌전도단 8월 12~15일 파송

충남 울정리로... 신청은 7월 28일까지

전도위원회에서는 오는 8월 12일(월)부터 15일(목) 까지 3박 4일간 충남 공주시 의당면 울정리 울정교회로 전도단을 파송한다. 전도단은 축호전도팀, 여름성경학교 진행팀, 의료봉사팀, 근로봉사팀으로 나뉘어 전도 및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 농촌봉사를 위한 준비위원회는 지도에 이순환 목사, 단장 김태기 장로, 진행 박종상 교역사를 선두로 기획, 홍보, 재정, 전도, 교육, 봉사, 의료, 예배 찬양 등 8개 분과로 나뉘어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전도단이 파송될 울정리에는 78가구에 320여명의 주민이 있다. 울정교회는 1988년에 시작하여 현재 장년 20명, 청년 2명, 중고등학생이 10명, 어린이 15명이 출석하고 있으며, 지도 교역자로는 김의석 전도사가 시

무하고 있다.

전도위원회에서는 이 일에 동참할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다. 파송될 전도단원은 전도 훈련과 교육을 받게되며 팀별 모임을 통해 효과적인 전도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전도위원회에서는 지역 주민과 나눌 생활 필수품들과 차량지원 및 운전 가능한 성도들의 지원도 기다리고있다.

전도단원의 훈련과 전도활동의 구체적인 준비를 위해 전도단원 신청접수는 7월 28일에 마감하며 물품은 8월 11일까지 접수한다. 자세한 문의는 교구 담당목사나 전도위원회로 하면 된다.

전도위원회 위원장 김태기 장로는 "무엇보다도 온 성도의 기도의 후원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말하고 있다.

새 교회요람 발간

교구간사 통해 다락방별 구입

우리교회 조직과 성도들의 인명록이 담긴 새 교회요람이 20일 발간되었다. 94년도에 발간되어 지금까지 사용해 온 교회요람은 많은 성도들의 이사와 새가족의 증가로 변동사항이 많았다. 요람편찬위원회(위원장: 노문환 장로)는 성도의 교제와 원활한 교회행정을 위해 늦은감이 있으나 새 교회요람을 출판하게 된 것이다.

이번 새 교회요람은 제직의 사진이 컬러로 들어가 있고 각 부서 조직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편집되었다.

이 책은 권당 3천원으로 교구간사를 통해 구입하되 다락방별로 공동구입 해줄 것을 권장되고 있다.

이번에 출판된 주소록에는 1996년 6월 이후 등록한 새가족의 이름은 포함되지 않았다.

툼 휴스턴 목사 찬양예배 설교

오늘 찬양예배 시 세계로잔위원회 전국재총무로 현재 순회전도 중인 톼 휴스턴 목사가 설교 한다. 휴스턴 목사는 한국로잔위원회 초청으로 지난 17일 내한하여 19일(금) 우리교회에서 열린 한국로잔위원회 초찬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한 바 있다.

『기독교교도소』 추진 영근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기독교교도소 추진위원회(위원장: 이종윤 목사)는 26일(금) 전체위원회를 개최한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세미나를 통해 기독교교도소 설립의 필요성과 가능성이 검토되어 왔었다. 이 자리에서 그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기독교교도소 설립은 한국교회가 우리사회에 미칠 또 하나의 영향력있는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계획은 우리교회의 김용진 집사와 김상철 집사의 참여로 활기를 더하고 있다.

무지개회 회장에 우선자 권사

무지개회(회장: 윤문자 권사)는 새회장으로 우선자 권사를, 총무에 이인선 집사, 서기 이영희 집사, 회계 남순덕 집사를 각각 선임하였다. 무지개회는 장로 부인으로 구성된다.



각 부서 여름행사 한창

이번 주에는 중등부수련회

지난 16 ~ 17일에 가진 당회원수련회를 끝으로 교회학교와 각 부서의 여름행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6일 밤 탁아부교사들은 철야로 수련회를 진행했으며 17일(수) 오전 9시에는 비가 오는 중에도 유치, 유년, 초등, 사랑부의 성경학교가 일제히 시작되었다.

교회학교들은 말씀과 기도, 연령별 특성에

따른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이번 성경학교의 주제인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배우고 익혔다.

이번 주에는 중등부가 충북 영동의 선희은행 연수원에서 3박 4일간의 수련회를 개최한다. 수련회장으로의 출발은 당일 9시 30분에 교회에서 한다. 그밖에도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와 소망부의 수련회가 8월 중에 개최될 예정이다.

창세기
강해

야곱의 탄식

(창세기 42장 24 ~ 38절)

이중운 목사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이 죄책감을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시간은 양심의 기록을 말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 앞에 엎드려 20년 전에 지은 자기들의 죄를 자책하며 고백합니다. 그들이 받은 가장 큰 형벌은 자기들의 양심에 의해 책망과 비난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르우벤은 자기가 요셉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했을 때 말을 듣지 않았으며 스스로 변명하려 했으나 그도 후회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한 요셉과 야곱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1.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이야기를 못들은 채하고 그들을 떠나서 울었습니다. 형들은 아직도 충분히 낮아지지 못했고 따라서 진정한 회개도 없으므로 요셉은 낯선 이방인으로 그들 앞에 서야 했지만 그는 온유한 자였으므로 복수심에 불탄 것이 아니고 형들에 대한 정에 넘쳐 울음을 참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불쌍한 인간을 향해 문초하기보다 눈물을 흘리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우신 예수님의 눈물과 같습니다.

2.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

요셉은 형들 중 시므온을 택해 옥에 가두고 다른 이들은 양식을 주어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아마도 형제들 앞에서 시므온을 결박함으로 그들에게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들이 떠난 후 곧 결박은 풀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곡식자루에 그들의 돈을 가져 가게 했습니다. 결국 형들은 돈 없이, 값없이 그들은 양식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비를 입었건만 두려워했습니다(28절). 죄를 지은 양심은 하나님의 좋은 섭리조차 불길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자기들을 위하여 사랑을 베푸는 것을 그들은 나쁘게 해석했습니다. 쫓는 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망치는 자와 같습니다.

부(富)는 가난만큼, 아니 그보다 더 심한 근심을 가져다 줍니다. 밭에 소출이 풍성한 자가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며 근심하였습니다(눅12:17). 요셉의 형들은 차라리 돈을 빼앗겼다면 돈을 돌려받은 것보다 덜 놀랐을 것입니다.

형들은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을 알았고(43:32) 또한 총리가 자기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웠기 때문에 이 사건을 전쟁을 하던가 아니면 자기들을 포로로 잡겠다는 음흉한 계책이 있다고 판단하고 매우 당황해 합니다. 영적으로 침체되던 모든 일이 그 침체를 부채질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과 기도로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이라 하는 야곱의 자손들은 그같은 흔적이 없이 두려워만 했습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모든 일을 통해 찾을 수가 있습니다.

3. 야곱의 탄식

야곱의 탄식은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애굽에서 겪은 아들들의 이야기를 보고받은 야곱은 큰 근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시므온을 인질로 두고 온 일이며, 베냐민이 애굽으로 가야할 일 등. 그들은 집을 떠날 때 아무도 그같은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잃은 것도 원통한데 베냐민의 운명이 어찌 될 것인지를 생각하고 심히 괴로와했습니다. 인생은 다가올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자식들의 과거 행적을 보아 혹 애굽인들을 속이거나 힘으로 위협하여 곡식을 가져오고 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인지도 모른다고 추측하며 걱정했습니다. 자식에 대한 불신이 그를 더욱 괴롭힌 것입니다. “너희가 나로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36절)라고 탄식하는 야곱의 마음속에는 피해의식이 가득 했습니다. 인간의 무지와 과오와 불신 때문에 실제로 유익한 것도 해로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괴로와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자식에 대한 불신 때문에 변민하던 야곱은

마침내 베냐민을 보내지 않겠다고 결론을 내립니다(38절). 르우벤은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 두 아들을 죽이라고까지 말합니다(37절). 그리고 반드시 베냐민을 데려 올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거절하며 탄식합니다. 부모가 가정을 신뢰할 수 없음은 가정의 불행입니다.

세상에서는 부자간에도 피해의식을 갖고 서로 불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자녀된 우리들이 당신의 품안으로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용서하시며 사랑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을 우리도 믿어야 하겠습니다. 아직 감추어 놓은 죄가 있다면 토설하고 우리의 양심을 속이지 않는 깨끗한 자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듯 신뢰할 수 있는 가정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 순례자 컬럼 ✦

“교회정치의 위기”

윤리학 강의가 필요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윤리학 교수의 최종 목표이듯 하나님의 교회에 질서와 치리를 위해 어떤 의미에서 교회 정치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정치적 조직이나 역할이 없이도 영적 은혜를 얻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것이다. 그러나 인간들의 모임인교로 정치와 치리가 따르게 되어 있고 질서를 위해 조직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같은 조직과 행정과 치리가 교회의 영성개발과 말씀 확장에 유익을 주는 것이 되어야지, 하나의 계급으로 또는 몇 사람의 교권주의적 자리싸움을 위한 것이 되거나 편협하고 웅졸한 율법주의적인 결의론적 사상에 빠지게 될 때에 교회를 위한다는 것이 오히려 교회를 질식시키는 결과 밖에 가져올 것이 없게 된다.

인간의 제도와 법은 하나님의 크신 뜻을 제한시키거나 묶어 놓아서도 안 될 것이고 생기 있고 능력있게 활동하는 교회의 거침들이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적용하고 겸손히 수정할 수도 있어야 할 것이다.

여름성경학교를 마치고

문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예수님

“어린이가 자신의 말과 의지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교사들은 이 문제에 관심을 모았다.

따라서 이번 성경학교의 프로그램은 ‘예수님 영접’에 초점을 맞추었다.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의 적응력이나 지혜가 선생님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이었지만 무엇보다도 교사들을 놀라게 한 것은 아이들의 성경 지식이 무척 풍부하다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

서 우리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너무도 정확하게 알고 대답을 했다. 교사들은 그 예수님이 자신과 무슨 관계가 있으며 날마다 생활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을지를 쉽게 설명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이어질 때 아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심을 하였다. 교사들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렸다. 문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아이들도 들은 것이다.

유치부



비 오는 날, 여호와 이레!

성경학교를 하루 앞두고 주룩 주룩 내리는 비

사랑부

는 준비한 교사들의 마음을 무척이나 안타깝게 하였다. 오랫동안 야외로 나가 성경학교를 개최하려 했는데... 이런 마음도 모르고 당일 아침에도 여지없이 비가 내린다. 할 수 없이 본당 2층에 자리를 잡았다.

사랑부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5개의 ‘학습센터’. 한 학생이 5개의 프로그램을 소화하는 것은 장애를 가진 사랑부 학생들에

게는 벅찬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거뜬한

자들이기에 가능하였으리라. 학생들의 반응은 놀라운 것이었고 교사들의 보람도 그만큼 컸다.

성경학교를 마치고 평가해보니 야외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큰 무리였을 것이라는 결론이 났다. 우리의 짧은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예비하심인 줄 알고 장소변경으로 부산을 열어야 했던 교사들은 뒤늦게야 감사할 수 있었다.



골판지와 색종이로 만든 성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여름성경학교가 되게 하기 위해 선생님들은 지난 몇개월을 기도하면서 준비하였다. 말씀과 기도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 외에도 “우리 하나 되어”, “가장 무도회”, “성경학교 만찬”, “함께 하나님의 진을 세우자”, “흔들! 흔들!”, “성경만화동산”, “서울미니올림픽” 등 성경학교 때만이 가능한 다양한 순서를 준비했다.

모두가 유익하고 즐거운 프로그램이었지만 가장 감동적이고 기억나는 것은 유년부 학생들이

지은 성전이다. 그것은 정말 대공사였다!

학년별로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금성전, 대치동에 세워질 서울교회 성전을 지어보았다. 금이나 은, 벽돌이나 철근 대신 금종이와 은종이, 커다란 상자와 골판지로 지은 성전이였다. 아름다운 색유리대신 색종이 모자이크를 해 넣었다. 청·홍·자색실 대신 형광을 드리웠다. 대치동의 새 교회당에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친구는 새친구가 오면 맛있는 사과를 따주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유년부

요리솜씨도 마음껏 발휘하고

이번 여름성경학교는 나와 내 친구에게 참으로 특별한 기회였다. 내가 전도한 친구 효진이가 우리교회에 나오게 되었

기 때문이다 / 박재원

우리들의 눈동자는 중등부 언니, 오빠들이 꾸민 연극과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따라 움직였다. / 임지혜

“그리스도인이 꿈꾸는 세상 - 하나님 나라!”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알게 된 이 말을 나는 좋아하게 되었다. / 오태연

나는 성경학교가 이렇게 재미있는 건지 몰랐다. 너무나 재미있었다. 이런 복된 날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었다. / 이원희

구원에 대해 설교를 들은 뒤 선생님께서 기도를 하실 때 몇몇우는 아이들이 있었다. 그 어는 때보다 알았던 여름성경

학교. 다가올 겨울성경학교는 더욱 더 유익할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 / 최하늬

하룻밤을 교회에서 지내며 보내는 여름성경학교를 설레임 속에 기다렸다. 게임과 퀴즈가 섞인 설교시간이 매우 흥미진진했다. / 유현주

· “우리 요리솜씨” - 나의 요리솜씨를 마음껏 발휘해 보았다.
· 기상시간 - 밤에 폭 자다가 주님이 주신 저 햇빛 받으니 너무 기분이 좋았다. 예수님 품 안에 있는 줄 알았다. / 이윤재





여름성경학교
표정, 표정



■ 자매교회를 다녀와서

산중턱 외딴 곳 베다니교회

김종자(권사, 한나 제 2전도회)

장마가 잠깐 주춤하던 맑은 날에 우리는 충청도 베다니교회로 향했다. 능암을 지나 남한강을 끼고 도는 차창밖으로 빗물을 머금어 생기가 오른 산천초목을 바라보며 절로 감사와 찬양이 나왔다.

올해부터 한나 제 2전도회가 지원하고 있는 베다니교회가 설립된 것은 30년 전. 교회당은 마을과 멀리 떨어져 있는데다가 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어 양적인 부흥에 다소 지장이 있다고 했다. 더욱이 10년 전부터 교회가 두개로 갈라져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현재 주일에는 10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교인의 대부분이 노인과 어린이들이다. 장년 재적 17명 중 주일 출석은 12명 정도이고 주일 오전 8시 30분에 시작하는 교회학교에는 19명이 출석하고 있다고 한다. 교회당은 5년 전, 신축을 한 것이어서 예배드리는데 그리 큰 불편은 없었으나 지난 태풍에 큰 피해를 입어 이곳저곳 손질할 곳이 많아 보였다. 이런 일에 많은 봉사자가 요구되지만 교인들이 모두 농사에 바빠서 젊은 목회자 내외가 손수 일을 꾸려가고 있었다. 그들은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5개년 계획까지 수립하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애쓰고 있었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그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굳건하게 해 주실 것을 축복했다.

목사님은 방학기간 중에 일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농촌교회를 위해 일할 젊은이들의 봉사의 손길을 기대한다고 하였고 초등학생들이 입을만한 옷을 보내주면 감사하겠다는 말을 덧붙혔다.

피폐해져가는 농촌에 복음을 심어 부흥케 하려는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헌신하는 젊은 목회자에 무조건 더 많은 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다.

자원봉사자

교회 사무국과 부속실에서 자원봉사 하실 분을 찾습니다. 문의는 사무국(☎ 517 - 7651 ~ 5).

■ 교우 동정 ■

* 김영화 집사(9교구)는 8일 전남경찰청 교통과장에서 경찰청 치안연구소 교통대책실장(총경)으로 전근. (☎ 365 - 4808)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춘천기독교방송(HLDC 93.7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X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상」	주일 오후 10시 ~ 10시 45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교회학교의 여름수련회를 위해
2. 농촌전도단을 위해
3. 농어촌 자매교회들을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殿)을 건축할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